고양 in 고양소식 행복人

2020 시정소식지 고양소식 독자 만족도 조사

참여기간 2020. 12. 1.(화)~2020. 12. 18.(금)

고양시 시정소식지 <고양소식>에서
고양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정소식과 유익한 정보를 전하고 있는 **<고양소식>이 독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더 나은 소식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고양소식>의 발전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독자 만족도 조사 기간에 참여해주신 분 중
50분을 추첨해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참여방법

① 본지에 삽입된 설문 엽서를 통한 참여
② 설문 링크를 통한 참여 ※ QR코드 스캔

고양소식 별책부록 삽입

고양 in 고양소식 행복人

GOYANG CITY MAGAZINE

2020 December vol. 334
12

연말연시 서로에게 꼭 필요한 선물, '잠시 멈춤'

'모임 취소, 외출 자제로 동참해주세요'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고양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의 힘

허정열

돌아서면 숨어버리는
등이 궁금하다
타인의 손 묵묵히 받아 주는 곳
언젠가 뒤로 넘어졌을 때 등판이 버티어 주었다
등지겠다고 나서는 당신을
맞받아치는 것도 등이었다
마음을 쓸어내릴 때
일어서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깊어지는 곳
등쳐먹고 달아난 놈의 흔적이 가슴에 머무를 때
바닥에 몸 누이고 짓무른 상처 받쳐주던 힘
나는 수시로 그 힘을 빌려 쓴다
등에게로 가는 길은 멀어서 불안한가
가까운 사람과 등을 지면 그는 내게서 아득해진다
등을 바람막이 삼아 달려온 생
등을 돌려 서로 마주 보면
따뜻한 말씀 한 자락 건너온다
내 몸 뒤편에 푸른 힘
사람과의 모서리를 지울 때마다
뻣뻣한 직선은 곡선이 되었다

허정열
등단 1999년, 《지구문학》
작품집 『편지 선생님』, 『안녕, 낯선 사람』
수상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 동인문학상

06

10

14

표지 이야기
12월에는 고양시에서 운영 중인 관광정보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호흡기 전담 클리닉의 모습을 담았다. 특히, 고양시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해 코로나19에 선제대응하고 있다.
-06·10·14p

Contents

December vol.334

꿈꾸는 고양

04 **고양사랑방**
05 **문예마당** 어느 길에서 본 고양시의 천사
06 **코로나19 특집**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본격 시행
10 **고양포커스** 고양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과 그 가족을 품다
12 **고양오늘** 고양시 임신·출산·양육 종합정보 가이드북

함께하는 고양

14 **고양 여기 어때** 머물거나 들르거나, 한결같이 좋은 공간으로 고양관광정보센터
16 **고양人, 즐거운 수다** 암 환자의 사회 복귀, 사회적협동조합 만들어 돕고 있어요! - '다시시작' 안연원 대표
18 **고양읽기** 고양 사이버역사박물관 새로운 북한산 이야기 동영상 3편 서비스 시작
20 **동네방네 이야기** 탄현동-주교동-행신2동-마두1동

소통하는 고양

24 **이달의 칼럼** 우리가 처한 기후위기 그리고 고양시의 기후 행동
26 **정보 톡톡** 2021 연말정산 변경사항 알아보기
28 **이달의 문화행사**
30 **시정·유관기관 정보**
32 **도서관 정보**
34 **의정소식**
35 **건강상식**
36 **문장의 신**

무료 구독 신청 안내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와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간되는 월간지 <고양소식>을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고양시청 홈페이지 → 늘푸른고양 → 시정소식지 → 구독신청 및 주소변경
- **전화 및 이메일 신청 고양시청 언론홍보담당관실 고양소식 담당자** 전화 031-8075-2093 / 팩스 031-8075-4904 / 이메일 gysosic@korea.kr

발행인 고양시장 이재준 **편집인**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편집위원** 정동일/왕연우/박원배/유윤정/채은경/김민정/윤재진/이경헌
발행일 2020년 12월 1일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이메일** gysosic@korea.kr **팩스** 031-8075-4904
기획·디자인 더에이치(주)

고양 사랑방

고양시민 및 소식지 독자분들의
소중한 의견에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 **원고종류**
  수필·콩트·체험수기·기행문·독후감·사진·만화 등 제한 없음
- **원고분량**
  A4 용지 1장 이내(시·만화 등은 적정 분량)
- **원고마감**
  수시 접수
  * 채택되신 분은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낼 곳**
  10460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주교동) 고양시 언론홍보담당관실 <고양소식> 담당자
- **E-mail** gysosic@korea.kr
- **고양시청 홈페이지**
  www.goyang.go.kr
  (늘푸른고양/시정소식지)
-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yangcity

11월호 독자 후기

여소은(고양시 일산동구)
생태 보물을 찾아 떠난 일산호수공원 속, 다양한 자연환경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어 좋았습니다. 평소 그냥 지나쳤던 것들인데 다시 보니 참 귀하고 아름답네요.

강경숙(고양시 일산동구)
비대면 시대, 무인민원발급기로 서류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발 빠른 대처 고맙습니다. 설치 장소도 따로 알려줘 앞으로는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호 문장의 신 당첨자

< 11월의 단어 >

나뭇잎, 추위, 감기, 시작

이정란
추위에 떨던 길고양이가 감기에 걸렸는데, 떨어진 나뭇잎들이 소르르 소르르 구르기 시작하더니 고양이들을 살포시 덮어주네요.

어느 길에서 본 고양시의 천사

글 김규근(고양시 일산서구)

회사의 급한 일로 사무실을 나선 찰나,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가는 할머니가 보였다.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너무나 무겁게만 보이는 손수레를 끌고 있었다. 종이박스 같은 폐지와 고물을 모으는 할머니이신 듯했다. 그때 횡단보도에 파란색 불이 들어왔다. 급한 마음으로 길을 건너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할머니 쪽으로 시선을 두는 순간, 손수레가 멈춰서버렸다. 오르막길이었다. 고물을 잔뜩 실어 무겁기만 한 손수레를 끌던 중 할머니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오르막을 맞딱뜨린 거였다. 순간 귀를 찢는 듯한 경적이 무섭게 울려 퍼졌다. 손수레를 끌고 오르막을 오르지 못한 채 길을 막고 서있는 할머니에게 빨리 비키라는 짜증 섞인 소리였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할머니께 달려가 손수레를 밀어주지 않았다. '이걸, 어쩌지? 할머니를 도와드려야 하나? 지금 빨리 안 가면 거래처 끊겨버릴 텐데…….'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고민을 했다. 할머니 손수레를 밀어드리면 저 꼭대기까지 최소한 10분은 더 걸릴 터였다.

그때였다. 할머니 뒤쪽에서 다가서던 트럭 한 대가 길가에 차를 세우더니 그 안에서 운전자가 튀어나왔다. 그리고 용수철같이 빠른 몸놀림으로 다가가 "할머니, 비켜보세요"라며 직접 손수레를 끌고 오르막길을 성큼성큼 올라갔다. '아, 구세주가 나타났구나. 다행이다.' 일단 안도의 숨을 쉬었지만, 이윽고 부끄러움이 몰려왔다. 트럭 운전기사의 행동에 경외심도 생겼다. 본인도 무척 바빴을 텐데 차를 옆에 세워두고 내려와 손수레를 끌어준 트럭 운전기사 아저씨. 우리 고양시가 아직 따뜻하고 이웃을 향한 정이 살아 있는 도시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해준 그 트럭 운전자에게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운전 기사님, 사업 번창하시고 행복하세요. 손수레 할머니도 오래 사세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본격 시행
사적 모임 자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동참

지난 11월 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최근 직장이나 각종 소규모 모임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시는 매일 재난대책안전본부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 고위험군 시설 합동점검 등 다양한 대처로 이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글·사진 편집부

고양시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

시는 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에 개방형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자인메디병원, 일산복음병원, 17개소 1차 의료기관에 의료기관형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 총 21개소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에 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으로 의료기관의 환경을 개선하고 환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1차 의료기관 의료진의 안전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호흡기 환자의 선별 치료가 가능해졌다. 또한, 보건소 선별진료소, 호흡기 전담 클리닉,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유증상자가 당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어 코로나19 유증상자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한다.

보건소에 설치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접수실, 진료실, 검체 채취실로 구성돼 공간 분리와 음압설비, 비말 차단 등 환경요건이 적용됐다. 의사 1명, 간호 인력 1명, 행정 및 소독 담당 2명이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상근하며 관내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해 진료를 진행한다. 만약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면 즉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별도 처방도 하게 된다. 운영시간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 동일하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운영한다.

1차 의료기관에는 음압기가 설치되고 의료진 보호구가 제공된다. 접수대와 진료실에 가림막이 설치되고 자동 손소독제 분사기, 비대면 체온계, 비대면 청진기가 제공된다.

일산서구보건소 호흡기 전담 클리닉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11월 24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는 11월 16일 긴급재난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로 지속 발생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달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단계로 격상되면 유흥시설의 영업이 중단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에 더해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방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노래방의 경우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사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뒤 사용할 수 있다.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의 정상 영업은 오후 9시까지 가능하며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영화관과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와 음식섭취 금지 지침을 지켜야 한다. PC방도 동일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하되, 단체룸에 대해서는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은 안 된다. 종교행사의 참여 좌석수는 20% 이내로 제한하고. 학교 등교 인원은 3분의 1(고등학교 3분의 2)로 줄어든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2.5단계 전까지는 운영을 허용한다.

위생업소 방역수칙 점검

다중이용시설 방역실태 점검

시는 현재까지 코로나19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코로나19가 최초 발생한 이후 매일 아침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엽고, 박애원, 화중초 집단감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조기에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점검

시는 할로윈데이를 맞아 10월 30일과 31일 양일간 젊은 층의 많은 이용이 예상되는 클럽, 번화가 주변 음식점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시는 클럽 등 고위험시설 182개소뿐만 아니라 화정 로데오거리, 일산 라페스타, 웨스턴돔, 가로수길 등 번화가 주변 음식점 150개소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길거리 캠페인도 함께 실시했다.

또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2월 3일을 앞두고 11월 18일부터 노래연습장, PC방 등 학생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방역지침 이행 실태를 중점 점검했다. 노래연습장은 음식물 섭취 금지, 이용한 룸 바로 소독 시행,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등을, PC방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없는 경우) 등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5단계로 세분화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1월 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에 적용되고 있다. 새 거리두기 체계는 5단계로 세분되며 1단계는 수도권 100명 미만, 1.5단계는 100명 이상, 3단계는 전국 800명에서 천 명 이상 등 1주일 동안의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핵심지표가 된다.

1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1.5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이 제한되며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의 모임과 유흥시설 영업이 금지된다. 2.5단계에서는 50명 이상 모임이,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또 150㎡ 이상의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PC방, 학원, 결혼식장, 공연장 등 14개 시설은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권고한다.

결혼식장, 영화관, PC방 등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며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확대된다. 이 같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나 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출처** 보건복지부

달라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개념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기준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①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②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③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준수사항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주요 방역조치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마스크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50%)	관중 입장(30%)	관중 입장(10%)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등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종교활동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1/5 수준)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1/3 수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고양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과 그 가족을 품다

고양시는 2018년부터 국내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오픈·운영 중이다. 시 직영이라는 장점을 살려 지역발달센터가 갖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기초발달센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나가고 있다.

글 이경헌(고양소식 편집위원) **사진** 장애인복지과

하이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인 가족들

2018년부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중

올해 6월 기준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인구는 41,432명으로 전체 고양시민 대비 3.9%를 차지한다. 이 중 10.1%가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7.8%, 자폐성 장애인 2.3%)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발달장애인이 고양시에 거주 중이다. 이는 행정관청에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만 따진 것으로 실제 장애인이지만, 사회적 낙인 등 여러 이유로 굳이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우리 주위에 장애인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난 비율은 9.3% 정도로, 대부분이 분만 도중 의료사고나 질병,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사회·환경 및 후천적 요인에 의해 장애를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장애는 개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닌 사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고양시는 2016년 고양시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부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다른 장애 유형의 경우 접근성의 제한이 없도록 외부적인 환경을 개선하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자기주장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힘들다. 이에 발달장애인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문을 열게 되었다.

특히, 고양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고양시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사례로, 장애인복지과 내의 조직으로 편성해 직영함으로써 대상자의 민감한 정보 수집을 통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우는 한편 실효성 있는 복지서비스의 연계가 가능해 긍정적 측면이 많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전체

장애인 가족의 정서적 치유가 필요한 상황

물론 한편에서는 시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지원해야 하느냐는 부정적 시선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지난달 장애인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한 '마음가드닝'이라는 마음 치유 프로그램은 장애인가족이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었다.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장애인가족인 것이 특권도 아닌데 충분히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비용을 100% 보조해야 하느냐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장애인이 된 요인 중 약 91%가 사회·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이기에 사회가 이들을 책임지는 것은 타당하다. 특히, 장애인가족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어느 순간 '장애인가족'이 되었다. 가족 휴가를 가려고 해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못 가는 곳이 태반이고, 장애인 형제를 뒀다는 이유로 부모로부터 관심을 덜 받게 되고, 자녀가 장애인이 된 것이 마치 부모의 잘못인 양 바라보는 사회의 그릇된 편견에 시달리는 등 장애인가족으로서 겪는 스트레스도 상당하다.

실제로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단지 장애인의 부모라는 이유로 교사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항변하지 못하는) 자신의 자녀를 잘 봐달라는 마음으로 언제나 '을'의 입장이 되어 사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런 까닭에 그동안 장애인가족으로 살아오면서 받았던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등으로 생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에서 예산을 들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등교하지 않는 기간이 길었던 까닭에 장애학생과 부모 혹은 비장애인 형제들이 종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가족들의 스트레스도 그만큼 늘어나 가족의 정서적 치유가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꾸준한 지원 필요

경기복지재단의 '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에 있어서 (1) 발달장애인 특화일자리 개발 및 확대 (2)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확대 (3) 발달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시설 설치·운영 (4)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근로보조수당 지급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고, 건강 측면에서는 (1)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재활 바우처 (2) 발달장애인 스포츠 바우처 확대 (3) 발달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4) 발달장애인 조기개입 협력체계 구축 (5)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 유치 (6)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 유치 등을 제시했다.

또 가족지원과 관련해서는 (1) 생애주기별 및 최중증장애를 위한 주간보호시설 지원 및 확충 (2) 안심팔찌 보급 (3) 생애주기별 가족교육과 가족심리상담 지원 강화 (4) 생애주기별 통합정보지원체계 마련 (5) 발달장애인 지원 활동지원사 역량강화 교육 (6) 발달장애인 365쉼터(일시보호시설) 유치 (7)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미래보장에 대해서도 여러 방안을 제시했는데, 앞으로 시는 본 보고서를 토대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방안을 꾸준히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마음가드닝에 참여한 장애인가족들

각 가정에 맞는 정보
쏙쏙 골라보세요~

고양시 임신·출산·양육 종합정보 가이드북

아이 1명을 낳고 기르는 것도 쉽지 않은 요즈음, 고양시에서는 임신·출산·양육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별로 시행부서도 다양하고, 어느 부서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몰라 막막할 고양시 출산 전·후의 가정을 위해 고양시의 모든 임신·출산·양육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정보를 담은 가이드북이 제작되었다.

글 여성가족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보제공

가이드북에는 2020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고양시 임신·출산·양육가정이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이 실려 있으며, 출산 전·후 및 다자녀가정 여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구분되어 있어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골라 볼 수 있다.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에게는 난임부부 시술비를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한다. 난임은 최근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육아 부담으로 결혼 후에도 출산을 미루는 경향, 식습관과 환경의 변화 등 원인으로 모든 부부의 15~20% 정도가 경험하는 매우 흔한 문제이며 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기 출생 시에는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지원금, 탄생축하 쌀 케이크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특히 탄생축하 쌀 케이크는 2008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모든 출산가정에, 고양시에서 생산된 쌀을 원료로 하여 고양시에 소재한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제작한 케이크로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장소로 직접 배송해주어 만족도가 높다.

누구나 쉽게, 어디서든 편하게!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고양시민은 누구나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도서관에 비치된 가이드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양시 임신·출산·양육 종합정보 가이드북 온라인으로 보는 방법

고양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 > 열린시정 > 고양소식 > 새소식 > 2020년 고양시 임신·출산·양육 지원사업 종합정보 안내 검색

임신·출산·양육지원 대표사업

사업명	대상자	지원내용	문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일부 지원 -만 44세 이하: 최대 110만 원 -만 45세 이상: 최대 90만 원	관할구 보건소
산후조리비 지원	영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50만 원 상당 지역화폐(고양페이) ※ 신청기한: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맘편한 산후조리 지원	분만예정일 40일 전~분만 후 30일 이내의 출산가정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	
출산지원금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출산가정	출생아 1인당 70만 원 ※ 신청기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관할동 행정복지센터
출생 축하용품	고양시 거주 모든 출산가정	손 세정제 세트 (본품 1개+리필 2개)	
탄생축하 쌀 케이크	고양시 거주 모든 출산가정	탄생축하 쌀 케이크 (11종 中 택1)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아동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가정양육수당	86개월 미만 영유아를 직접 돌보는 가정	연령 별 차등 지급 (10만 원~20만 원)	
아이돌봄 서비스	(종일제) 만 3개월~36개월 (시간제) 만 3개월~12세	기준중위소득 150% 미만: 정부지원금 보조(일부 본인 부담), 그 외 본인 부담 100%	

머물거나 들르거나, 한결같이 좋은 공간으로 고양관광정보센터

고양시 관광의 시작이자 중심이 될 고양관광정보센터가 11월 5일 정식 개관해 업무에 들어갔다. 고양관광정보센터의 위치는 일산동구 중앙로 1271-1번지, 정발산역 2번 출구 앞 일산문화공원 내이다. 전통과 현대적인 느낌이 조화된 아담한 2층 건물이 세련되면서도 정다운 느낌을 준다. 앞으로 고양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첫인상이 될 고양관광정보센터를 찾아가 보자.

글·사진 최용석(고양시 소셜기자)

고양관광정보센터
위치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1-1(정발산역 2번 출구)
운영시간 매주 화요일~일요일, 오전 10시~오후 7시
문의 031-8075-3004

테이블과 의자가 비치된 넓은 로비

사시사철 변화하는 계절을 느낄 수 있는 루프탑

고양시 관광 정보와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 제공

고양관광정보센터는 고양시 관광 명소들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고양시 관광을 위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다. 또한, 관광객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양관광정보센터는 다양한 공간들을 갖추고 있는데 먼저 1층에는 관광 안내와 편의를 위한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다.

들어서자마자 고양의 주요 관광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고양관광테마가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으며, 고양시에 대한 모든 정보와 관광지 추천, 행사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안내데스크와 미디어영상관, 카페와 기념품샵이 자리하고 있다. 테이블과 의자가 있는 넓은 로비는 앞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모임 장소가 될 예정이다.

2층은 커뮤니티 및 체험 공간 중심이다. 아기자기한 시설들이 많아서 시민들이 짬짬이 이용하기에 좋다. 무엇보다 '고양재'라 명명한 한옥 부스가 따뜻하면서 고즈넉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좋은 사람과 차 한잔하면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싶은 공간이다.

북카페 '여행자도서관'

아담하지만 알찬 내용과 시설로 꾸며진 공간

'여행자도서관'이라는 이름의 북카페도 있다. 이곳에서는 여행과 문화에 대한 다양한 책을 볼 수 있다. 가장 마음에 든 것은 여행자도서관이라는 이름이다. 그 이름에서 고양관광정보센터를 기획한 이들의 마음가짐을 짐작할 수 있다. 보통 도서관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마련인데 여행자도서관은 머무는 이들은 물론 들렀다 가는 이들을 위한 도서관일 테니 말이다. 앞으로 이곳을 찾는 여행자들에게 특별한 곳으로 기억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그 외에 미디어창작실과 전망 좋은 회의실 등 커뮤니티 공간들도 있다.

고양관광정보센터의 또 하나의 매력적인 공간, 루프탑을 빼놓을 수 없다. 루프탑의 갈색 마룻바닥과 어우러진 가을 풍경이 멋지다. 사시사철 계절의 변화에 따라 풍경과 느낌이 변하는 멋진 공간이 될 전망이다.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 되기를

고양관광정보센터는 아담하지만 알찬 내용과 시설로 빼곡히 꾸며진 공간이다. 외국 여행을 가면 대부분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곳이 그 도시의 관광정보센터일 것이다. 말도 안 통하고 길도 몰라서 난감할 때 시야에 들어오는 알파벳 i자는 정말 반가울 것이다. 그래서 도시의 관광정보센터는 그 도시의 첫인상으로서 여행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마련이다. 시민들에게는 휴식과 모임의 공간이 되고 고양시를 찾은 관광객들에게는 편의를 제공하며 좋은 추억을 만드는 곳이 되기를 기대한다.

암 환자의 사회 복귀, 사회적협동조합 만들어 돕고 있어요!

'다시시작' 안연원 대표

경의중앙선 백마역 1층에 위치한 리본(Re: Born)은 암 환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사회복귀지원센터이다. 이곳에 암 극복 사회적경제기업 1호 '다시시작'이 있다. 다시시작은 국내 최초로 유방암 환자들이 설립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암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탈모 예방 비누 등을 제작해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그 수익은 다시 암 환자의 사회 복귀를 위해 돌아간다.

글 공주영 **사진** 조병우

Q — 다시시작은 어떻게 시작한 협동조합인가요?

국립암센터에서는 유방암 환우 자조모임인 '민들레회'를 20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회원이었어요. 암 환자들은 몸도 힘들지만, 마음 관리도 필요합니다. 병마에 시달리다 보니 우울증에 걸리기 쉬워요. 그래서 민들레회에서 정기모임을 통해 정서에 도움이 되고 자기 계발에 필요한 강좌를 많이 열어줬어요. 저 역시 민들레회 임원 활동을 하던 중에 사회적협동조합 아카데미 강좌를 들었는데 그러면서 투병으로 경력 단절이 된 암 환우를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2018년 8월 국립암센터와 고양시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암 환자 일자리 창출 인프라 조성' 협약을 맺고 암 환자와 생존자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을 지원해주었어요. 2019년 10월 31일 리본 센터에서 개소식을 열고 민들레회 임원 5명이 힘을 합쳐 다시시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돌이 지났네요.

Q — 암 환자의 사회 복귀는 어떻게 돕고 있나요?

긴 투병 활동을 하다 보면 경력이 단절되어 가정에서만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각자가 지닌 재능이 충분한데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요. 저 역시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고요. 저희 같은 암 환우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비누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 피부에 트러블이 일어나고 전신이 가려워요. 또 머리가 빠지고 두피에 각질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런 경험을 살려서 천연재료를 사용한 세안비누와 샴푸바를 만들었어요. 피부와 모발이 거칠어지는 암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세안비누와 탈모 예방 비누, 청소년용 비누 등 여덟 종의 비누를 만들어서 판매 행사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매출로 비누를 만들고 포장하는 등의 일을 돕는 암 환우들의 인건비를 제공해요. 올해는 상반기 열 명, 하반기에 열 명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했어요. 저희가 만든 제품은 온라인사이트(www.resocoop.org)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Q — 비누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일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 환우들이 참여하는 경기민요동아리인 희망소리꾼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어요. 희망소리꾼에서는 암 환우를 위한 다양한 공연을 많이 진행해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로 동아리 모임을 하기 힘들어 활동을 하지 못했네요. 남은 하반기에는 모임을 조금씩 가지면서 내년 활동에 대한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또 국립암센터발전기금 기부행사나 바자회 등에 참여해서 저소득 암 환우를 위해 치료비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암환자의 사회복귀지원센터 '리본'

Q — 이곳 리본 센터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려요.

암에 걸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것도 힘들지만 사회로 다시 돌아가 일을 하기 힘들다는 것도 큰 어려움이에요. 리본은 '다시 태어나다(Re: Born)'는 의미 그대로 힘든 암 치료 과정을 겪은 환자들이 각자 재능을 살려 창업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복귀지원센터예요. 암 환자나 암을 치료한 사람이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 컨설팅을 해주는 창업커뮤니티 공간이면서 암 환자들이 언제든 와서 휴식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또 저희처럼 직접 만든 제품을 전시하기도 하고요. 지나가다가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와 전시 제품을 관람할 수 있어요. 곧 센터에 소아암 환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경제기업 2호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Q — 앞으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나요?

올해는 코로나로 판매 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도 창출하고 기부도 꾸준히 할 계획입니다. 제2의 '다시시작'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할 거고요. 또 정서적으로 취약한 암 환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이곳에서 직접 얼굴을 보며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여의치 않다면 온라인으로 모임을 가지는 방향도 생각 중이고요. 또 고양시 소재의 기관들과 교류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싶어요.

고양 사이버역사박물관 새로운 북한산 이야기 동영상 3편 서비스 시작

이번 호 고양읽기에서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북한산성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 고양 사이버역사박물관에 대해 소개한다.

글·사진 정동일(고양소식 편집위원)

북한산 용암봉 위에 쌓여진 북한산성 성곽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북한산성

한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험준한 지형에 산성을 쌓은 곳이 북한산이다. 산과 봉우리, 계곡을 지나는 북한산성은 한강 남쪽의 남한산성과 구분되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고양시에서는 북한산성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적 특징과 역사적 가치를 고찰하기 위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시는 인근의 서울시 등과 협의하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행정적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고양시의 모든 역사를 한번에 볼 수 있는 곳

고양사이버역사박물관에서는 고양시의 현황, 이야기, 문화유산과 역사를 한번에 볼 수 있다. 고양시의 중요한 역사, 소중한 문화유산, 역사와 옛이야기 등을 담고 있으며, 특히 관내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수록된 여러 고양이야기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

고양시의 지도에 중요한 장소를 표기하여 일반인들도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도에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고양의 독립운동지, 독립운동가, 독립운동사 등을 특집으로 동영상을 제작·게시했다.

고양 북한산의 역사, 문화유산, 자연과 생태계 수록은 처음

고양사이버역사박물관에 새롭게 게시된 북한산 이야기는 '고양성'이 특히 강조되어 있다. 북한산의 여러 코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탐방하고 있는 일명 '숙종의 길'을 중심으로 봄, 여름, 가을의 문화유산을 담았다. 특히 정부의 허락을 받아 드론을 이용해 촬영한 영상은 한국의 알프스라 부르기에 충분한 북한산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북한산과 북한산성, 북한산의 주요 봉우리와 자연, 생태계를 각각 나누어 영상물로 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롭게 게시된 북한산 이야기 1편 '고양 북한산의 아름다움을 담다' 편에서는 북한산의 여러 봉우리를 소개하고 계곡과 전통사찰, 성벽, 북한산 8경 등을 담았다. 간단한 북한산의 역사와 볼거리 등을 1편에서 쉽고 편안한 분위기로 시청할 수 있다.

2편 '산성의 꽃 북한산성 답사기'에서는 고양시 대학생과 북한산성 전문가가 함께 북한산성을 오르면서 곳곳에 담긴 이야기를 소개한다. 북한산성을 쌓은 이유와 성곽구역별 특징, 16개 성문의 현황과 전통사찰, 북한산성의 관계 등도 답사기에 담겨 있다.

3편 '휴(休) 북한산'에서는 북한산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쉼터'를 소개한다. 계곡의 물과 햇빛, 별빛과 숲을 별도의 내레이션 없이 잔잔한 음악으로 소개한다.

제작된 동영상은 유튜브(고양사이버역사박물관 채널)로도 볼 수 있다. 최근 북한산 탐방객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야외 쉼터 이용과 나들이가 늘었기 때문일 것이다. 고양사이버역사박물관에 실려 있는 동영상을 한번 보고 북한산을 오르면, 좀 더 편하고 유익한 등산·답사가 될 것이다.

고양 사이버역사박물관 www.goyang.go.kr/ghistory

코로나 속에 피어나는 꿈의 전달자 우리는 북튜버 푸른선생님입니다

글·사진 유자영(북튜버 푸른 선생님)

코로나가 한창인 지난 5월부터 고요함을 뚫고 아파트 이곳저곳을 조용히 다니던 수상한 사람들이 있다.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이 최소화되어야 했기에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지낼 수 없어 모두가 우울해할 때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행복을 전하기 위해 우편함 아이디어를 낸 2020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북튜버푸른선생님의 이야기다.

봉사단원들은 아파트 안에 있는 도서관에서 진행되던 책 읽기와 독후활동을 이어나갈 방법을 고민한 끝에 책 읽기 공간을 유튜브로 옮기고 아이들에게 나눠줄 독후 활동 키트를 제작했다. 책 읽기를 시청한 후 문자로 독후 활동 키트를 신청한 아이들의 세대 우편함에 키트를 넣어주고 아이들이 아파트 카페에 게시한 독후활동 사진을 모아 다음 영상에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호기심에 출품한 경기사이버도서관 온라인 다독다독 북튜버 부문에서 최우수상 2편(야! 비온다, 엄마까투리), 우수상 1편(아픈바다)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도서 저작권 협의부터 영상 촬영, 편집, 업로드와 키트 만들기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작업을 배워야 했지만, 선생님들은 함께 배우면서 자신들의 재능도 발견하고 스스로 보람된 일을 하고 있다는 뿌듯함도 느낄 수 있었다.

북튜버푸른선생님은 고양시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마무리한 이후에도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혹은 금요일에 책읽기 영상을 업로드하고 독후 활동과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까지 절기에 대한 활동, 환경에 대한 이야기, 야생화나 자연에 대한 이야기 등을 다양하게 기획해 아이들에게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 일산에듀포레푸르지오 푸른울타리 북튜버푸른선생님의 영상은 유튜브 '#북튜버푸른선생님'으로 검색 가능하다.

소소한 행복과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 동네

글·사진 김경원(벽산아파트 관리소장)

주교동 벽산아파트는 입주 20년을 넘어선 작은 단지이지만, 가족 같은 아파트이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주민들은 엘리베이터에서, 주민 사랑방 같은 단지 앞 맥줏집에서 반갑게 인사를 나눈다. 이웃 부재, 소통 단절이라는 보통의 아파트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는 주민과 경비대원들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이태 전 아파트 입주 때부터 근무해 온 분이 18년 만에 정년퇴임을 했다. 그분 이외에도 10년 넘게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민들이 대원들에게 음식과 간식거리를 말없이 건네는 모습은 흔하다. 그런 정성에 대원들도 성심껏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답하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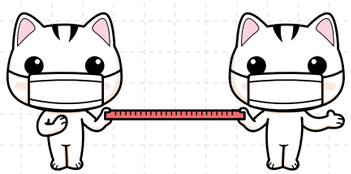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린 올해, 우리 아파트 공동체는 그야말로 '열일'을 했다. 지난봄 고양시 공동체 활성화 지원금을 받아 '나눔의 바자회', '복날 삼계탕 나누기' 등을 기획했으나 코로나19로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었다. 많은 사람이 모여야 하는 바자회와 복날 행사가 취소됐지만 최소한의 대면으로 가능한 다른 행사를 가동했다. 지난 6월 말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들과 사랑회 회원들이 주축이 돼 오이·고추 피클 만들기에 도전한 것이다. 오이 10접, 청양고추 10여 박스 등을 지역 농가로부터 사들여 정성껏 간장을 끓여 붓는 작업 끝에 2ℓ들이 피클 350통을 만들 수 있었다. 전체 세대와 나누고 원당복지센터와 주교동의 저소득층 가정에도 전달했다. 9월 추석 직전에는 송편을 빚어 아파트 전 세대, 주교동 이웃들과 나누어 먹기도 했다.

이 모든 활동은 요즘 유행하는 '워킹 스루' 방식으로 진행했다. 떡과 피클을 나누고 서로에게 응원이 되는 메시지를 스티커로 붙이며 '힘내자'는 메시지를 공유했다. 봄에 단지 내 화단에 씨 뿌려 가꿨던 봉숭아는 '물들이기 봉숭아 키트(봉숭아 꽃잎, 잎사귀, 백반 등)'로 제작돼 원하는 이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좋아했고 어르신들은 추억을 되살리는 좋은 기회였다는 반응이었다.

'코로나 우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도 형편에 맞춰 최선을 다해 우리 공동체로 생활하고 지내온 2020년으로 기억된다. 앞으로도 소소한 행복과 즐거움이 넘치는 주교벽산아파트가 되기를 바란다.

살기 좋은 우리 동네 주민이 만듭니다

글·사진 윤찬수(행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



'함께'라는 단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더불어 손잡고 실천하는 우리 동네를 자랑한다. 바로 KTX 북부종점 행신역이 있는 행신2동 이야기이다.

코로나19 때문에 올 추석에는 웬만하면 이동을 하지 말자고 자제하는 분위기였지만, 그래도 평소보다는 훨씬 이동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는 데다 장장 5일이나 되는 긴 연휴 동안 코로나19가 확산되면 어쩌나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다. 이에 코로나19 이동인구가 많은 행신역에 열화상감지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부랴부랴 열화상감지카메라를 수소문했다. 다행히도 인근 학교에서 대여가 가능하다고 하여 행신역으로 옮겨 설치하는 일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 빠르게 진행했다.

문제는 모니터링을 '누가' 하느냐였다.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열화상감지카메라 지킴이를 첫차 시간인 6시경부터 밤 24시까지 누가 담당할 것인지로 행신역장과 행신2동장이 고민에 빠졌다. 봉사도 좋지만, 명절 연휴에 누가 가정을 뒤로하고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모두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행신2동에는 우리 동네를 위하는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는 직능단체가 있었다. 즉시 자원봉사가 가능한 위원들의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방위협의회, 시민안전지키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방위협의회, 체육회 식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전해왔다. 이렇게 모인 동 일꾼들은 코레일 직원들이 담당한 새벽 시간대를 제외한 8시부터 23시까지 꼬박 열화상감지카메라 모니터링은 물론 시민 방역지침 홍보 역할까지 도맡아 하며 즐겁고 뿌듯하게 활동을 이어갔다. 백 번 자랑해도 백한 번 자랑스러운 훈훈한 광경이었다.

우리 마을의 숨은 봉사자를 소개합니다

글·사진 김은수(마두1동 통장)

정발산을 중심으로 광대한 녹지 공간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마두1동의 14통에는 늦가을이 더 아름다운 가로수길이 있다. 가로수길은 오랜 세월 아이들의 등굣길이자 주민들의 산책로가 되어 휴식 공간으로 사용돼왔으나, 한쪽에는 산더미 같은 쓰레기가 쌓여 있어 마을에 악영향을 끼쳐왔다.

마을의 성장 가능성을 저해하는 가로수길 쓰레기 문제는 '누군가는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고질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때 선뜻 손을 들어주신 분이 계셨다. 바로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봉사해주시는 마두1동 14통 2반 김은실 반장님이다.

반장님과 나는 쓰레기 무단 투기의 집적지가 되는 부근에 꽃씨를 심고 키우기로 결정했다. 길가에 즐비한 쓰레기봉투와 오물들을 처리함과 동시에 가로수 28그루 아래에 꽃씨를 뿌리고 흙을 뿌리는 작업을 진행했다. 둘이서 하기엔 고된 일이었지만, 묵묵히 노력하시는 반장님의 모습에 힘을 얻어 웃으면서 함께할 수 있었다. 이렇게 모든 작업을 마치고 지난 7월 '상자 텃밭 꽃 심기' 마을 행사가 열렸고 반장님은 행사 전날에도 앞장서서 도와주셨다.

우리 마을은 모든 주민의 소중한 봉사와 양심 있는 행동 덕분에 지금과 같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조용히 빛나는 여러 명의 희생과 헌신이 존재해왔다. 그중 마을의 아름다운 꽃길을 만드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은 반장님의 노고에 존경을 표한다. 우리 마두1동이 살기 좋은 동네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한다는 반장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우리가 처한 기후위기 그리고 고양시의 기후 행동

영화 '투모로우(2004)'를 떠올려본다. 영화를 보지 못했더라도 아마 무슨 내용인지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을 것이다. 바로 '기후변화'다. 이 영화에서는 갑작스레 기온이 영하 50도로 뚝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정말 영화 같은 일이라 현실감 있게 와닿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불과 십수 년 만에 이 영화 같기만 했던 일이 현실이 돼버렸다.

글 박순영
(고양시 기후대기과 전문위원)

1.5℃까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 단 '7년'

올해 우리나라는 기상청의 관측 이래 최장 일수를 기록한 54일간의 장마를 겪었고, 몇 달간 지속된 호주·미국의 산불은 재앙에 가까운 수준이었으며, 극지방은 관측 이래 최초로 10월에 얼음이 얼지 않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이 올 한해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의 주요 원인은 바로 온실가스이다.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데 지구 평균기온이 올라갈수록 냄비의 물이 끓으면 뚜껑이 들썩이고 끓어 넘치는 것처럼 지구의 표면이 끓으면서 기존보다 훨씬 강도가 강한 기상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연 강수량은 크게 변하지 않는 대신 폭우 횟수와 강우량이 크게 증가하여 홍수 피해가 발생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런 기후위기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지구 온도가 산업혁명 이후 단 1℃ 상승했다고 밝히며 2℃까지 상승하게 되면 지구상 수많은 생명체의 생존이 어렵다고 말한다. 나아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존하려면 1.5℃까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한다. 여기서 1.5℃ 상승은 산업혁명 이전 기준이다. 즉, 앞으로 남은 온도는 0.5℃이며, 이 온도상승을 이끌 온실가스량에 도달하기까지 단 7년 남았다. 이 때문에 2015년에 197개국이 파리에 모여 2℃까지 높이지 않고 1.5℃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하기도 했다.

고양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시민주도 기후행동'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다. 고양시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고양시의 온실가스는 수송(36%)과 전력(31%), 에너지산업(8.8%), 폐기물(6%) 등이 주요 배출원이다. 즉, 시민들이 날마다 이용하는 교통, 가정·상업에서 이용하는 전력, 난방과 쓰레기가 주요배출원인 것이다. 그럼 무엇부터 해야 하는 걸까?

첫째, 수송(에너지원 및 수단) 전환이다. 전기차로 교체하더라도 전력공급원이 화석발전이라면 온실가스 배출량에는 큰 차이가 없다. 에너지 전환이 빨리 되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며, 관련 산업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결국 시민이 나서야 변할 수 있다. 수요자가 대중교통이나, 도보·자전거로 이동하는 비율을 높일 경우 산업계는 저절로 변할 수밖에 없다. 시민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함과 동시에 수송을 전환해야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

둘째, 건물의 녹색전환이다. 전력, 에너지산업은 결국 가정과 상업에서 발생하는 수요로 녹색전환은 에너지를 덜 쓰고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가능하다. 고양시는 개발 면적의 대다수가 주거지와 상업지이며, 주택의 70.3%가 아파트이다. 지은 지 30년이 다 돼가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이들 건물이 **패시브하우스**[1]를 넘어서 재생에너지까지 공급하는 **제로에너지빌딩(ZEB)**[2]이 되어야 한다. 초기 투자비용은 크나 궁극적으로는 냉난방비가 감소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점이 커 그 효과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셋째, 폐기물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구조가 필요하다. 독일 프라이부르크나 미국 몇몇 대학에서는 다회용기를 도입해 반납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개인의 텀블러 사용도 좋지만, 정말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폐기물 절감정책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탄소흡수원 강화가 필요하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아무리 줄여도 이미 배출한 온실가스는 줄어들지 않는다. 즉, 우리는 지구온난화와 이로 인한 기후위기를 피할 수가 없다. 탄소저장고로 알려진 생태계(습지 등)는 적극 보호하고 그 기능을 잃지 않도록 복원·보호·보전해야 한다. 또한, 도시 내 다양한 면적에서 표면의 녹지율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해 **탄소중립**[3]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양시는 지난해 말 2030년에 배출할 온실가스량을 예측해보고 이 배출량 예측치의 32.8% 감축목표를 수립했다고 한다. 어느 지자체보다 공격적인 감축목표이다. 하지만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이 목표는 결코 달성할 수가 없다.

온실가스량 감축은 고양시, 시민,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구에는 우리만 살고 있지 않을뿐더러 우리만 살 수도 없다. 지구와 함께 공존 공생하는 고양시 그리고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

1)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주택
2) 에너지기술을 최소화하는 패시브기술과 고효율기기,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한 액티브 기술 등을 적용하여 사용자가 외부의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
3)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흡수량을 늘려 온실가스 배출량의 순 합을 '0'으로 맞추는 것

미리미리 챙기는 연말정산

2021 연말정산 변경사항 알아보기

어느덧 연말정산을 생각해야 하는 때가 찾아왔다. 만 1년이 되어가는 코로나 시대에 맞춰 연말정산도 예년과는 달리 바뀐 부분들이 있다. 미리 확인해 각자에게 맞는 계획을 세워 '13월의 보너스'를 챙길 수 있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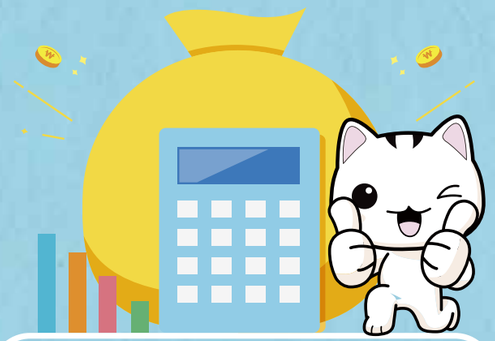
글 편집실 **자료** 카드고릴라

1.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적 확대

기존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합계가 연봉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할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연봉의 25%가 넘는 금액부터는 소득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했다. 하지만 2021년 연말정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3월 사용분은 결제수단에 따라 기존 소득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의 2배가 적용되며, 4월부터 7월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80%의 금액을 공제한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액 한시적 상향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액이 한시적으로 구간별 30만 원씩 상향됐다. 기존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까지, 7천만 원 초과 1억2천만 원 이하는 250만 원까지, 1억2천만 원 초과는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는 각각 330만 원, 280만 원, 230만 원까지 가능해졌다.



3. 달라지는 세액공제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상향

50세 이상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1억 이하, 총급여 1억2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연금, 퇴직연금 세액공제에서 연금저축계좌 납입 400만 원, 퇴직연금계좌 합산 700만 원이던 한도가 각각 600만 원, 900만 원으로 상향된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 업종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이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의 업종으로 확대되었다.

경력단절여성 요건 확대

경력단절여성 요건에 결혼과 자녀교육 사유가 추가되었다. 경력단절기간 또한 퇴직 후 3~10년에서 3~15년까지로 확대되었다.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해외 주재 내국인 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 복귀 시 소득세가 5년간 50% 감면된다.

4. 과세제외 관련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매·임차 관련 이익

중소기업 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구매, 임차 관련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5. 비과세 관련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 이익

벤처기업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다.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 연도 총 급여액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 총급여 2,500만 원 이하의 생산직 근로자만 대상이었던 데에서 3,000만 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로 확대되었으며, 비과세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은 2019년 귀속부터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이달의 문화행사

※ 상기 공연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축소·연기·취소될 수 있습니다.

고양아람누리

새라새 ON 시리즈 7

송영주 with Friends-Jazz Meets Christmas

일시 12. 4.(금)~5.(토) 금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5시
장소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 **입장료** 전석 3만 원

온 가족이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을 위해 새라새극장에서 특별한 크리스마스 재즈 공연이 준비된다. 다채로웠던 한해를 모두 끌어안는 포근한 재즈 음악에 송영주만의 색을 입혀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연말을 선물한다. 피아니스트 송영주와 그의 친구들, 황호규(베이스), 임주찬(드럼), 양현욱(색소폰), 일자별 게스트 보컬(12/4 소울맨, 12/5 선우정아)이 출연하며 Christmas Song, Winter Wonderland, Santa Clause is Coming to Town 등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곡들로 단 하나뿐인 새로운 감동과 설렘이 가득한 겨울을 선사할 것이다.

2020 아람누리 마티네 콘서트 1

오상진의 스윗클래식

일시 12. 10.(목) 오전 11시 **장소**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
입장료 전석 2만 원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이하여 베토벤의 주요 활동 무대이자 고전 음악의 메카였던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대표하는 두 거장, 베토벤과 모차르트의 음악을 재조명하는 올해 마지막 마티네 콘서트이다. 김광현이 지휘하는 코리아쿱오케스트라가 연주하며 바이올리니스트 양정윤이 협연하는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5번',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서곡',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과 '교향곡 5번 운명 4악장'을 아나운서 오상진의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고양예술인 레퍼토리 개발 공동제작 프로젝트 II

광개토 사물놀이 예술단 [국악 & 힙합 하이브리드 콘서트 '무브먼트 코리아']

일시 12. 13.(일) 오후 2시, 6시 **장소**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
입장료 전석 2만 원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고양시 관내 예술단체와의 공동제작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문화예술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고양문화재단 예술동행(藝術同行) 프로그램 두 번째 공연이다. 외교부 주최 각국 수교기념 공연 초청 이후 많은 나라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은 광개토 사물놀이 예술단을 중심으로 판소리, 전통무용, 비보잉, 디제잉, 비트박스 등 다양한 요소를 한데 엮어 역동적인 한국을 주제로 신선하고 독창적인 열정을 잘 표현한 작품이다. '전통문화는 고루하고, 재미없다'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관객들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도록 국악 연희의 원형과 변형을 넘나들며 관객과 함께 역동적인 신명의 에너지를 나누고 우리 문화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울러 2020년 연말, 관객들과 우리의 것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다.

12월 주요 공연안내

일정	공연	장소
12. 4.(금)~6.(일)	뮤지컬 '알사탕'	고양어울림누리 별모래극장
12. 5.(토)	2020 에일리 전국투어콘서트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
12. 12.(토)~13.(일)	뮤지컬 헬로카봇 시즌5 '별똥별을 지켜라!'-고양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
12. 19.(토)~20.(일)	렛잇고 시즌2 엘사의 겨울왕국(앵콜)	고양어울림누리 별모래극장
12. 25.(금)~26.(토)	신비아파트 뮤지컬 시즌3: 뱀파이어왕의 비밀-고양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
12. 25.(금)	2020 론 브랜튼의 '재즈 크리스마스!'-20주년 기념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
예매 및 문의: 고양문화재단 1577-7766 www.artgy.or.kr		

시정·유관 기관 정보

한강하구 평화이야기 '겨울, 새가 날다'

기간 12. 31.(목)까지 ※ 매주 월요일 휴무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모집인원** 선착순 20명
소요시간 9:30~13:30(4시간)
프로그램신청 고양시 홈페이지 통합예약→체험견학→생태체험 →한강하구 평화이야기
일정안내 9:30 출발(고양관광정보센터)→10:00 한강하구의 새를 보다 (행주산성 역사공원)→11:00 만들고 써보고(장항버들장어 전시장)→11:30 새들의 밥상(행주산성) →12:00 장어 먹을까? 국수 먹을까?(행주마을, 점심은 본인 부담)→13:30 헤어짐(고양관광정보센터)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문의 (사)에코코리아(031-967-4774), 고양시 문화유산관광과(031-8075-3404)

시민참여자치대학 고지식 콘서트 안내

기간 12. 11.(금) 14:00~16:00
대상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
강연자 및 강연주제 김누리, 포스트 코로나
대상 고양시민
입장료 무료
접수방법
· 고지식콘서트 홈페이지(www.goyang-univ.com)
· 고양시 평생학습포털(www.goyang.go.kr/edu)
· 고지식콘서트 사무국(02-3274-9214)
주최·주관 고양시, ㈜토브콤
문의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고양시 평생교육과(031-8075-2278)
※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행사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

'업사이클링, 신세계를 만나다!' 온라인 공개특강 진행

내용 '업사이클링 활동' 온라인 공개특강
모집대상 30~60대 여성
진행기간 ~12. 31.(목)까지
진행주제 폐가죽 업사이클링 활동(예정)
진행방법 참여 신청 후, 업사이클링 활동 키트 제공 및 온라인 수강
신청문의 흰돌종합사회복지관(070-7820-4252)

2021년 겨울방학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생 모집

신청기간 12. 1.(화)~12. 15.(화) 9:00~18:00
모집인원 100명 ※ 예산·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일반 선발: 58명
· 보건소 연수 희망자: 2명(사회복지 및 보건계열 전공 대학생 우대)
· 취약계층 우선선발 대상: 20명
· 소상공인 자녀 우선선발 대상: 20명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대학교 재학생(휴학생 포함)
· 대학원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재학생 등 제외
· 고양시 2019년도 겨울·여름방학, 2020년도 겨울·여름방학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 참여자 제외
신청방법 고양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 방문접수 불가, http://www.goyang.go.kr/www/event/index.do
문의 고양시 일자리정책과(031-8075-3712)

2021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고 5~10% 할인 받으세요!

대상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산정기간 2020. 7. 1.~2021. 6. 30.
· 1. 16.~1. 31. 신고·납부하는 경우
-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10% 감면
· 3. 16.~3. 31. 신고·납부하는 경우
- 해당연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10% 감면(즉, 1년분의 약 5% 감면)
신청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위택스는 신고 즉시 납부 가능)
· 전화접수(고양시 환경정책과 031-8075-2648~50, 2667)
· 방문

만65세 이상의 행복 기초연금 신청 안내

내용 만 65세 도달 어르신 및 만 65세 이상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어르신의 기초연금 상담 및 신청서 접수
신청시기 생일이 있는 달(주민등록 기준)의 전달부터
전화상담 국민연금 콜센터(1355)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2020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조사기간 (인터넷·모바일조사) 2020. 11. 23.~12. 11.(19일간)
(방문면접조사) 2020. 12. 1.~12. 18.(18일간)
조사대상 전국 모든 농림어가 및 행정리
조사항목 종사형태, 정보화기기 활용, 생산자 조직 참여 여부 등
조사방법 인터넷·전화조사 미참여 가구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
주관·실시 통계청, 고양시
문의
· 농림어업총조사 콜센터 080-360-2020 (11. 23.~12. 18. ※ 09:00~20:00)
· 2020 농림어업총조사 홈페이지(www.affcensus.go.kr)
· 고양시 기획담당관(031-8075-2067) 및 각 구청 자치행정과 (덕양구 031-8075-5027, 일산동구 031-8075-6029, 일산서구 031-8075-7036)

#에코챌린지 참여 안내

내용 일회용품 사용 급증에 따라 친환경생활 실천행동 캠페인
모집대상 지역주민 누구나 **진행기간** ~12. 31.(목)까지
진행방법
· 참여 문의 및 신청하기 (전화 또는 카카오채널 '고양시흰돌종합사회복지관')
· 주제 선택하기('플라스틱 제로', '장바구니 챙기기')
· 참여 신청 후, 일주일 동안 실천하기
· 실천 모습 사진 찍어 전송하기
· 제로웨이스트 선물받기
신청문의 흰돌종합사회복지관(070-7820-4252)

겨울 꽃빛 아이스링크장 운영

기간 2020. 12. 19.~2021. 2. 14.(58일간)
장소 일산호수공원 꽃전시관 일원
이용시간 평일 10:00~17:30(4회차), 금·휴일 10:00~21:30(6회차)
행사내용 꽃빛 아이스링크장, 썰매장, LED꽃빛 정원, 꽃 체험·판매장 등
이용요금 일반 3천 원, 우대 2천 원 ※ 이용권에 화훼교환권 1천 원 포함
유의사항
· 아이스링크과 썰매장은 1회차 1시간 30분만 이용 가능
· 시설이용 시 마스크, 장갑 필수 착용
·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행사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
문의 031-908-7750, www.flower.or.kr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 매년 12월~3월(4개월) 시행
· 06시~21시(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은 경기도에 한해 21년 3월까지 과태료 유예(경기도 외 지역은 해당 시도의 조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과태료: 1일 1회, 10만 원
* 제외 대상: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생계형차량 등

비상저감조치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전일 오후 5시경 발령 후 익일 시행)
· 06시~21시(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과태료: 1일 1회, 10만 원
* 제외 대상: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생계형차량 등
*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및 비상저감조치 단속 여부 문의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푸른나래아동발달센터' 이용자(아동·청소년) 모집 안내

모집 기간 12. 31.(목)까지 ※상시모집
내용

프로그램	모집대상	시간	교육비(1회)
감각 통합치료	-전체적인 발달 지연 혹은 감각이 예민한 아동 및 청소년 -뇌성마비/시·지각 기술에 과잉반응을 보이는 아동 및 청소년	월~금 09:00 ~20:00 (회당 50분 수업 /10분 상담)	35,000원
미술치료	행동·정서·심리적인 문제를 미술활동을 통해 해결하고 싶은 아동 및 청소년		32,000원 (재료비 포함)
언어치료	원활한 의사소통과 언어 습득을 원하는 아동 및 청소년		30,000원

장소 문촌7복지관 3층 푸른나래발달지원센터
문의 고양시 문촌7종합사회복지관(070-8693-2275)

도서관 정보

도서발굴단 추천도서

사서가 읽은 책

도서발굴단이 읽은 책을 소개한다. 도서관 사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어떤 책을 읽었을까? 좋은 건 나눠야 배가 되니, 좋은 책으로 함께 힐링하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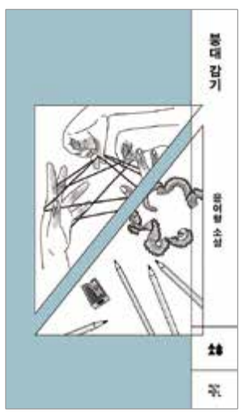
글 고양시도서관

도서발굴단이란?

책과 문장을 수집하는 고양시 사서들의 네이버 포스트. 포스팅은 시기별 이슈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관심사가 반영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1 여성 간 다양한 관계를 다룬 소설_붕대감기

저자 윤이형 **출판사** 작가정신



소설 속 여성 인물들의 삶은 옴니버스 형식처럼 독립적이지만, 서로 교차되고 이어져 우정과 연대감을 만들어간다. 특별한 여성들의 서사가 아닌 우리 곁의 평범한 사람들의 갈등과 이해, 포용을 담은 이야기로 공감대를 형성한다. 우리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타인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어렵고, 친밀감을 유지하는 데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서로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닐까? 고통과 상처를 감싸주는 붕대처럼 우리는 길게 이어져 있고 서로를 놓을 수 없다.

책 속 한 줄

"너와 똑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변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삶이 전부 다 잘못된 거야? 너는 그 사람들처럼, 나처럼 될까 두려운 거지. 왜 걱정하는 거니, 너는 자유롭고, 우리처럼 되지 않을 텐데. 너는 너의 삶을 잘 살 거고 나는 너의 삶을 응원할 거고 우린 그저 다른 선택을 했을 뿐인데."

#2 반전이 있는 추리소설의 묘미_살인자의 쇼핑몰

저자 강지영 **출판사** 자음과 모음

삼촌의 정체가 궁금해서 순식간에 다 읽게 되는 소설이다. 유일한 가족인 삼촌의 죽음으로 인해 정지안은 삼촌이 운영하던 쇼핑몰의 비밀을 알게 된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정지안은 어떤 선택을 하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후반부로 갈수록 고조되는 긴장감과 반전은 역시나 추리소설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책 속 한 줄

"잘 들어, 정지안. 거의 모든 일은 처음에 한 결정이 옳아. 비 오는 날 칼국수냐 감자탕이냐 고민될 때 먼저 생각해낸 메뉴를 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칼국수지."

#3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찬 하루_모네는 런던의 겨울을 좋아했다는데

저자 조민진 **출판사** 아트북스

신문기자와 방송기자로 14년간 일했던 조민진 기자의 1년간 런던 생활기. 혼자 런던에서 미술과 프랑스어를 배우며 피트니스, 오페라, 미술관을 즐기는 그녀의 일상은 나에겐 딴 세상 이야기임엔 분명하다.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모아서 쌓아가는 작가의 부지런함은 생활방식과 가치관이 다른 나에게도 큰 자극이 된다. 아무거나, 되는대로,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꾸준히 모으고 싶어진다.

책 속 한 줄

"살면서 좋은 루틴을 많이 만드는 건 좋은 취향을 많이 만드는 것이다. 좋은 루틴과 좋은 취향을 차곡차곡 쌓아나갈 때 인생도 차츰차츰 더 좋아진다고 믿는다."

#4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는가_일의 기쁨과 슬픔

저자 장류진 **출판사** 창비

당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시간은 흐른다. 이만큼 또 시간이 흘러 더 세상이 변한 언젠가, 벌써 그때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작년은 어땠더라 하고 누가 당신에게 묻는다면 가볍게 이 책을 건네도 좋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어떤 평범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남아 있을 기억임에는 틀림없을 테니까.

책 속 한 줄

"우리 부부는 아이를 가지지 않기로 했다. 나에게 아이는 마치 그랜드 피아노와 같은 것이었다.…하지만 책임감 있는 어른,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그걸 놓을 충분한 공간이 주어져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아무리 부족해도 어떻게든 욱여넣고 살면 살아진다는 것도 알고 있다. 물론 살 수는 있을 것이다."

의정소식

고양시의회 이길용 의장,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 회장 선출

고양시의회 이길용 의장이 10월 29일 남양주시의회에서 열린 제92차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길용 의장은 경기북부 시·군의장의 협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으며 취임사를 통해 "경기북부는 다가오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시대에 남북교류를 이끌어갈 전초기지"라며, "남북교류의 선도적 역할을 함께 주도하여 경기북부 지역발전과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북부·군의장협의회는 경기도 북부지역의 발전 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하고자 2개월에 한 번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각 시·군의 현안사항과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양시의회 이웃나눔 실천을 위한 사랑의 마스크 전달식 가져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는 11월 5일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배다골테마파크(관장 김영수)와 포레스트아웃팅스(대표 현은정)으로부터 마스크 1만4천 장을 기부받아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하는 사랑의 마스크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고양시의회 이길용 의장과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장을 비롯하여 이창원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장, 고양시 관내 14개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전달된 마스크 1만4천 장(800만 원 상당)은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14개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전달되어 저소득층 재가 어르신과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건강상식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건강한 겨울나기

겨울철 장시간 한파에 노출되면 우리 몸은 생산되는 열보다 더 빨리 열을 잃기 시작하고, 저체온증, 동상 등 심각한 건강피해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 적절한 체온 유지에 늘 신경 써야 한다.

출처 질병관리청

한랭질환 예방수칙

1. **생활습관**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섭취,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하기
2. **실내환경** 실내 적정온도(18~20℃)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기
3. **외출 전** 체감온도 확인하기(날씨가 추울 경우 야외활동 자제)
4. **외출 시** 따뜻한 옷 입기(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착용)

주요질환

저체온증
오한, 피로, 의식 혼미, 기억장애, 언어장애 등
동상
찌르는 듯한 통증, 가려움, 피부가 검붉어지고 물집이 생김, 피부감각 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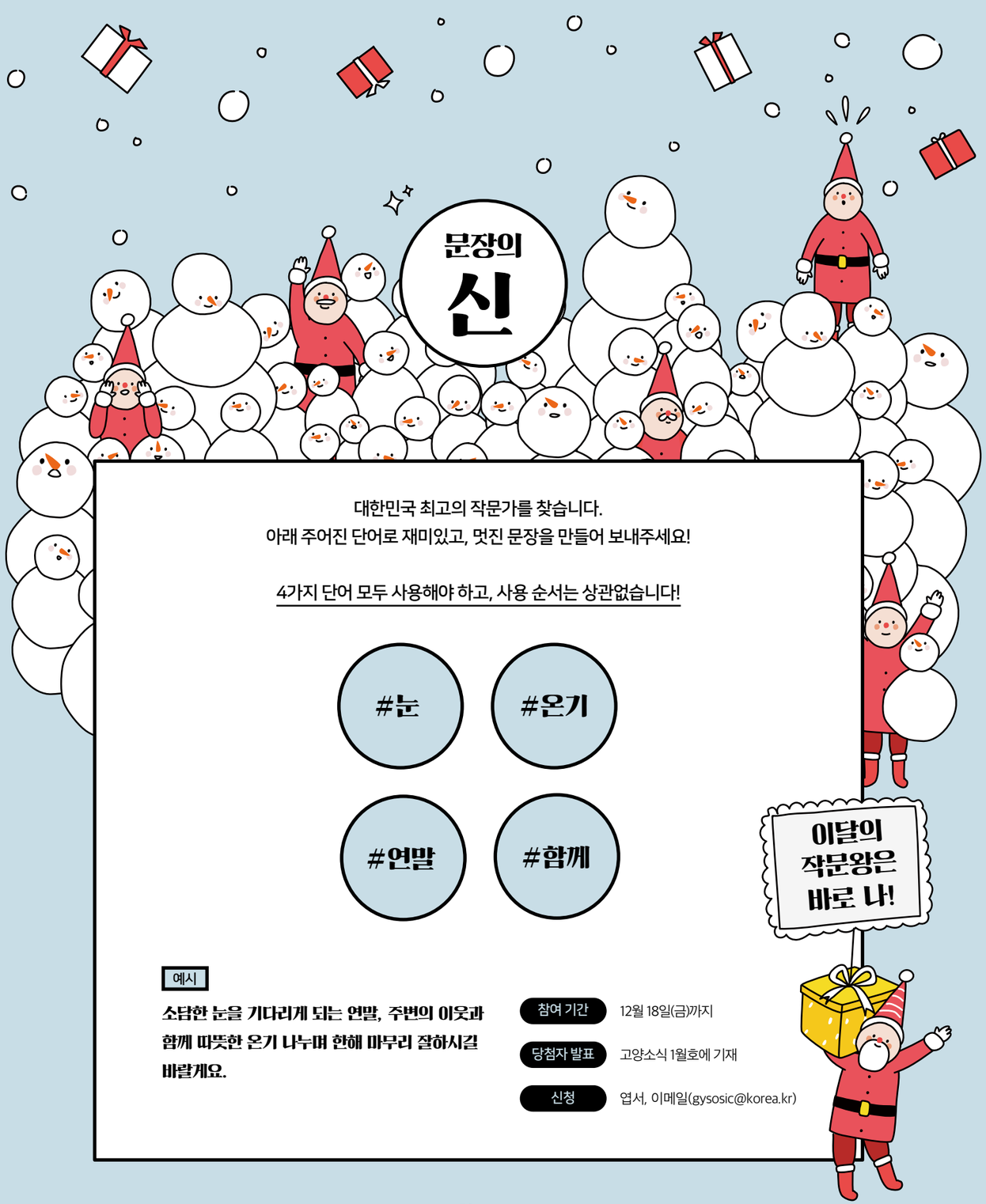
조치방법

- 가능한 한 빨리 의사의 진찰을 받을 것
- 따뜻한 방이나 대피소로 이동
- 젖은 옷을 모두 제거
- 담요나 옷으로 몸을 따뜻하게 할 것
- 동상 부위가 있다면 따뜻한 물에 담글 것

*심한 경우 동상 부위가 괴사할 수도 있으므로 초기 대처가 중요

위험군

저체온증 위험군	동상 위험군
· 음식이나 보온(옷, 난방)이 적절하지 않은 노인 · 장시간 야외에서 지내는 사람(노숙인, 등산객, 실외작업자 등) · 술을 과음하거나 항우울제 또는 금지된 약물을 복용한 사람 · 추운 환경에서 지내는 영유아	· 장시간 실외에서 지내는 사람(노숙인, 등산객, 실외작업자 등) · 극심한 추위에도 적절한 의복을 입지 못한 경우 ·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 최고의 작문가를 찾습니다.
아래 주어진 단어로 재미있고, 멋진 문장을 만들어 보내주세요!

4가지 단어 모두 사용해야 하고, 사용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눈 #온기 #연말 #함께

예시

소담한 눈을 기다리게 되는 연말, 주변의 이웃과 함께 따뜻한 온기 나누며 한해 마무리 잘하시길 바랄게요.

참여 기간 12월 18일(금)까지

당첨자 발표 고양소식 1월호에 기재

신청 엽서, 이메일(gysosic@korea.kr)

2021 고양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익형·시장형·사회서비스형」 참여자 모집

모집기간 2020. 12. 7(월) ~ 12. 15(화) 10:00 ~ 17:00

신청서 배부기간 2020. 11. 23(월) ~ 모집기간까지 10:00 ~ 17:00

모집인원 6,074명

신청대상
- 공익형 : 만 65세 이상 고양시 거주 어르신으로 기초연금수급자
- 시장형 : 만 60세 이상 고양시 거주 어르신
-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 고양시 거주 어르신(일부유형 만 60세 이상 참여가능)

신청불가 대상
-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인력파견형은 제외)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 노노케어사업 수혜자는 노노케어사업에 참여불가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

활동조건
- 공익형 : 주 2~3일, 1일 3시간, 월 10일, 10~12개월 활동
- 시장형 : 사업단별 상이
- 사회서비스형 : 주 5일, 1일 3시간, 10개월 활동

접수서류
- 참여신청서(접수처에서 서식 배부)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 기초연금 최근 입금내역 통장 사본
- 온라인 접수 안내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수 가능 (단, 서류는 방문 제출)

접수 및 문의처

기관명	주 소	연락처	관할구역
고양시니어클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로 142-20(대화동)	031) 904-2611~2	고양시 전역
고양실버인력뱅크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106(정발산동)	031) 932-7713~4	고양시 전역
고양시덕양노인종합복지관	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로 49(화정동)	031) 969-7781	덕양구
대한노인회 덕양구지회	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로 49(화정동)	031) 967-2143	덕양구
대한노인회고양통합취업지원센터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36번길 46 예일빌딩 303호(행신동)	031) 914-6065	덕양구
효샘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고양시 덕양구 능곡로7 삼준빌딩 4층	031) 970-0361	덕양구
고양시삼송동종합복지회관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80(삼송동)	02) 381-9094	덕양구
고양시일산노인종합복지관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731(장항동)	031) 918-4177	일산동구
대한노인회 일산동구지회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731(장항동)	031) 919-6640	일산동구
한국예탁결제원 시니어직능클럽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8(백석동)	031) 900-7268	고양시 전역
고양시대화노인종합복지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778(대화동)	031) 917-1352	일산서구
대한노인회일산서구지회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778(대화동)	031) 917-1781	일산서구

※ 거주지 인근 기관으로 신청 바랍니다.

고양시 Goyang City